



MIJU LAW FIRM

AI와 저작권의 충돌, 답은 있는가?

글로벌 IP 분쟁 사례와 지재권 미래 시나리오

김 미 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MIJU law firm



● 경력 Work Experience

- (現) 법률사무소 미주 (MIJU Law Firm) 대표변호사
- 2015 - 코넥스솔루션(TOMS, Canada Goose 공식수입원) 사내변호사
- 2012 -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COUPANG) 사내변호사
- 보유자격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주요 업무내역 Main Business Field

- 캐치!티니핑, BTS, 라인프렌즈, 핑수 등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침해대응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K-pop, 캐릭터 등)의 디지털 플랫폼 내 무단 도용 및 침해전담
-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등 IP 이슈 법률자문
- 온라인플랫폼 규제 및 전자상거래 법률자문

● 기타 활동 Extra Experience

- (現) 한국사이버안보학회 법률이사(상임), 정보보호학회 이사, 정보처리학회 이사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現)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現) 서울시/경기도 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지원단 전문가
- (現) 양육비이행관리원 비상임이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상임이사), 제2법제이사, 제2홍보이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 (前)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위원

AI 시대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 왜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알아야 할까요?



- ✓ 내가 SNS에 올린 글귀나 사진을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 ✓ 재미 삼아 가져온 캐릭터 도안이나 사진, 커버 댄스 영상, 영화 편집본, 친구들과 공유한 링크는 괜찮을까?
- ✓ 챗GPT나 너티 같은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는 문제가 없을까? 출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 지식재산권의 적용 범위와 논의 영역이 확장되고 복잡해지는 현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어디서부터 위법이 되는 걸까?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 일상 속 지식재산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출처 : WISDOM AGORA, illustration by Yeony Jung(정연이)

- ✓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더라도 허락 받은 저작물의 이용 방법과 조건에서 벗어나서 이용을 할 경우 **저작권 침해**
- ✓ 유튜브 등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 ✓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 ✓ 원작자 허락이 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 ✓ 패러디는 하나의 창작인가? 모방의 확장인가?

[ISSUE] 스스로 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이용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함
인간의 아이디어, 창작물에 관한 노력과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식개선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함

AI시대, AI와 IP의 충돌

■ 오픈 AI가 설계한 챗 GPT는 시작부터 저작권 침해??



사진출처: 로이터

- ✓ 미국 작가 2인(세상 끝의 오두막 저자)이 오픈 AI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 이유: "챗 GPT에서 소설의 요약이 매우 정확하다. 이는 **책에 대해 교육을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요약본이다.**"
- ✓ 오픈 AI가 **작가의 동의 없이** 소설책을 '챗 GPT' 교육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라 주장함.
- ✓ 챗GPT가 정보를 수집한 방법, 위치, 금전적 피해 입증 등은 쉽지 않겠지만, **저작권 침해소송 그 자체가 오픈 AI의 챗 GPT 훈련 및 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ISSUE] 학습데이터 관련? 막대한 양의 저작물을 **원작자 동의 없이** 생성 AI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 AI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로 인한 저작권 침해소송 다수 제기



사진출처: 메트로신문, DALL-E 생성이미지

- ✓ 미국의 AI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 2023년 13건 → 2024년 30건 이상
- ✓ 2023. 12. 27. 뉴욕타임즈(NYT)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상대로소송을 제기하며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가속화됨
- ✓ 2024. 6. 24.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AI 스타트업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함(손해배상청구액 수조원)
- ✓ 2024. 11. 캐나다 주요 언론사 5곳도 콘텐츠 무단 사용 등을 사유로 오픈 AI를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 2025. 2. 톰슨로이터 vs AI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AI학습에 콘텐츠를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이용(Fair use)' 해당하는지?

저작권법상 공정한 목적과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이 될 수 있다?

■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에 2,268조원 소송 제기 (2023년 1월 영국 2월 미국에서 제기함, 2025. 진행중, 2025. 6. 영국 일부 철회)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빌리티AI를 제소하며 증거로 제출한 사진. 왼쪽은 게티이미지의 스톡 이미지, 오른쪽은 스테이빌리티AI로 만든 이미지다. 오른쪽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왜곡된 모습으로 새겨졌다. 출처 =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

- ✓ 게티이미지(전 세계 스톡 이미지 기업)가 인공지능 사진 생성 두고 '스테이빌리티'의 개발사 스테이빌리티AI를 상대로 거대한 금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 게티이미지가 30여년간 쌓아온 스톡 이미지(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함. 즉, 이미지 라이선스를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I학습에 사용함(워터마크까지 그대로 사용됨)
- ✓ Open AI는 Shutterstock 콘텐츠 이용허락계약 체결 후 DALL-E를 학습시킴
- ✓ 생성형 AI학습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들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면 저작권 소유자들이 해당 업체에 저작권 사용 대가를 청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함

'생성형 AI'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속화... AI관련 저작권 분쟁

2023년부터 AI 도구와 관련된 법적갈등(소유권, 저작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AI를 개발하는 방법은?

■ [최신 Trend] AI모델의 저작권 침해 이슈 - 챗 GPT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해도 괜찮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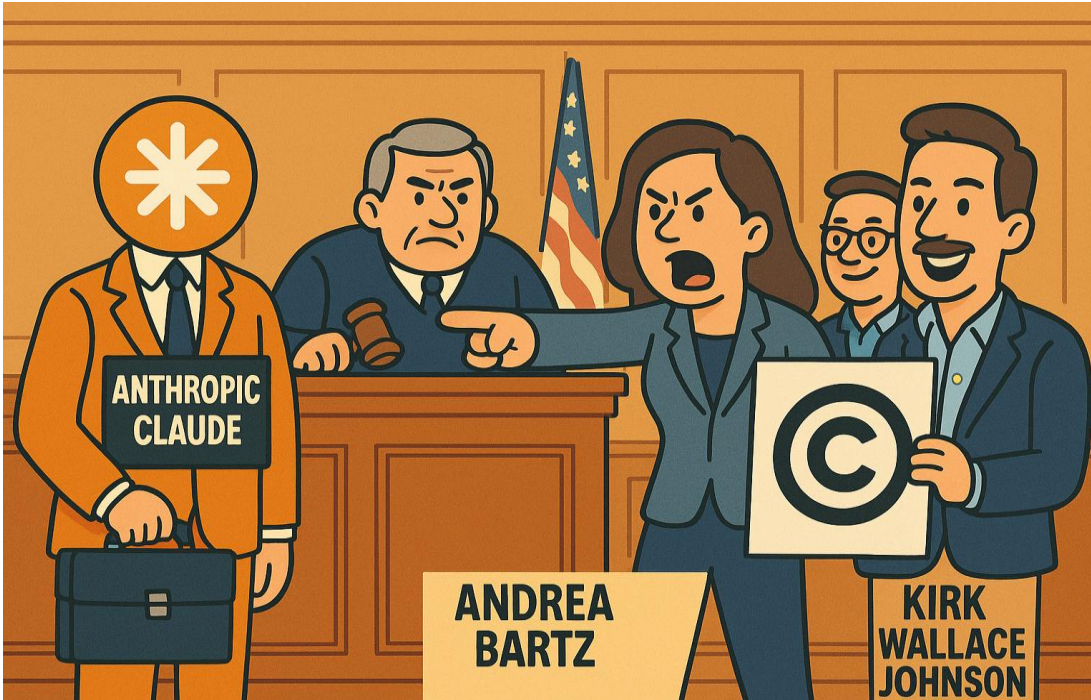
'사진출처: X, 샘 알트먼, GPT-4.0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필 사진

- ✓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이 지브리 스타일의 프로필 사진을 업데이트해 논란을 일으킴
- ✓ AI를 활용해 '지브리 스타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닐까?
- ✓ 창작의 영역? "AI모델이 개별 살아있는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복제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광범위한 스튜디오 스타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 오픈AI대변인
- ✓ "AI 이미지 생성 기능은 법의 사각지대",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오픈 AI가 지브리 작품을 AI학습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학습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AI 저작권 논쟁 재점화]

AI가 특정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창작의 영역인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

■ [최신 Trend] 작가 vs 앤스로픽 - 생성형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 사용, 괜찮나?



'사진출처: Med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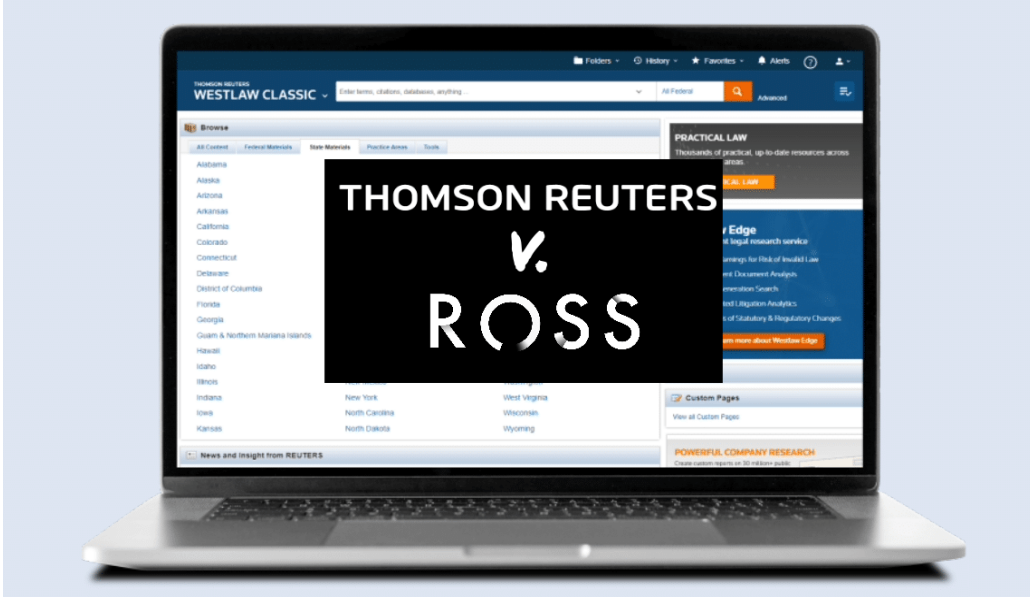
- ✓ 미국의 작가 3인, 앤스로픽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① AI '클로드'의 학습과 ② 사내 중앙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해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
- ✓ 일부 도서는 합법적으로 구매되었으나, 약 700만 권 이상의 저작물은 불법 다운로드(해적판)된 사실이 밝혀짐
- ✓ 작가들은 앤스로픽이 종이책을 스캔하는 등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보관한 점도 문제시함
- ✓ 생성형 AI 학습에서의 공정 이용 범위와 데이터의 출처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룬 사건

=> AI도 책에서 배울 권리가 있다? 사람처럼!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관련 '첫 판결']

데이터 수집 방식(출처)의 중요성 대두되며, 'AI 학습용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의 가능성

■ [최신 Trend] 톰슨 로이터 vs. 로스 인텔리전스 - 비생성형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 사용, 괜찮나?



사진출처: copyrightlately.com

- ✓ 톰슨 로이터 vs AI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로스 인텔리전스)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AI 학습에 콘텐츠를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 ✓ 톰슨 로이터의 법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웨스트로우와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사의 비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질의응답 문서(BulkMemo) 간 상당한 유사성 발견
- ✓ **법원의 쟁점은 공정 이용:**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도, 특정 조건 하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 (예: 교육)

비생성형 AI임에도 불구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에 관한 첫 미국 법원 판례**를 만든 중요한 사건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씨를 지킴!

Takeaway: IP Paradigm, Redefined by AI

“AI의 시대, 지식재산권은
과거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작자의 권리와 기술의 진보 사이,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해야 합니다.”

“In the age of AI, intellectual property can no longer
remain bound by the old framework.
Between the rights of creators and the progress of
technology,
we must define a new paradigm.”

삶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때도 있고, 마음 시리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창작성과 노력이 필요하듯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인생의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버티고 나면 언젠가 ‘나’의 가치를 세상에 당당히 공개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나’라는 저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고유한 삶을, 굳이 남들이 가는 길과 비교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시간에 조금해하지도, 남들이 가진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따라 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출처: 김미주, 챗 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THANK YOU

Brand Protection and IPR & Commerce
MIJU law firm